SUNBO ANGEL PARTNERS

CONNECTING DOTS 07

2019.10.30

삼진어묵과 F&B사업 '온지 1433' 론칭, 삼진어묵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싱가포르 JV설립
한국능률협회와 함께 제주 라운드테이블 'THINK WEEK' 개최
다시 창업가 정신으로 '라운드테이블 in 유럽' 개최 스토리
선보엔젤파트너스의 기업문화를 알 수 있는 선보 ESSAY

SUNBO
ANGEL
PARTNERS

삼진어묵과 F&B사업 '온지 1433' 론칭, 삼진어묵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싱가포르 JV설립

어묵 사업의 고급화와 대중화를 이끈 '삼진어묵'이 선보엔젤 파트너스와 함께 '온지'를 설립했습니다. '온지'는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의미의 한방 약차 제조 기술 브랜드입니다. '온지'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1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삼진어묵' 박용준 대표가 처음으로 투자해 F&B 시장의 혁신을 시도한 프로젝트입니다.
한방과 의학을 함께 전공한 온지 옥진아 대표와 젊은 창업가들은 한방차와 한식 간식들을 재정의한 '온지1433'을 론칭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파트너 중견기업이 함께 투자에 참여하였고, 향후 한방을 재해석한 간식과 음료를 국내뿐 아니라 홍콩, 싱가폴 등의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삼진어묵의 동남아 시장 도전을 위해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JV 프로젝트를 론칭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삼진어묵뿐 아니라 파트너 중견기업인 오토닉스, YC TEC도 함께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싱가포르에 JV 법인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베트남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삼진어묵 브랜드를 글로벌시장에 론칭하고자 합니다.

2019 글로벌 오피스 워크숍

경남 거제에서 2박 3일간 선보엔젤파트너스의 글로벌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선보엔젤파트너스 임직원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지사인 선보파트너스, 관계사인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등 총 30명이 참여해 글로벌 투자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의 하반기 글로벌 사업 계획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지사인 선보파트너스의 '싱가포르 연결전략', 글로벌 팀의 '유럽 라운드테이블 프로젝트 소개'와 커넥팅 팀의 '온스페이스 운영 전략' 등의 세션을 공유하며 글로벌 오피스간의 주요 프로젝트의 공유 및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거제도 해수욕장에서 화합을 도모하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지며 팀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영찬 대표는 "선보엔젤파트너스는 국내, 해외로 오피스가 떨어져 있어 모이는 게 쉽지 않다"며 "주기적인 워크숍으로 글로벌 오피스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진화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in 대구 #30 모빌리티의 혁신을 말하다!

7월 25일
대구 삼보모터스에서
30번 째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습니다

대구 기반의 스타트업 투자 회사인 예원파트너스와 함께 한 라운드테이블 in 대구는 삼보모터스의 세천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삼보모터스는 대구를 대표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입니다.

예원파트너스의 김주영 대표로 소개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삼보모터스 이유경 상무의 '삼보모터스와 스마트팩토리'의 소개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이재천 계명대학교 교수(자동차공학부)의 '미래형 자동차의 산업생태계'와 마이클진 루멘캐피탈 파트너의 '글로벌 전망과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카카오&미래의 산업&벤처투자'를 주제로 카카오 최세훈 SVP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카카오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자기주도성,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오픈형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끊임없이 조직혁신을 하며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고, 많은 중견기업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in 부산 #31 좋은 사업 아이템은 우리의 일상 속, 의식주에서 나온다!

8월 28일
선보엔젤파트너스 부산 본사에서
31번 째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사회적 기업을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라이머 특집으로 기획됐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의 '프라이머 데이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권도균 대표는 "좋은 사업 아이템은 우리의 일상 속, 의식주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며 "본능에 부합하는지, 1분 30초 안에 얼마나 깊이 있게 인사이트를 풀어내는지를 본다"고 투자 포인트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스타트업의 기회는 "모바일과 소프트웨어에 있다며"며 창업 생태계에 관해 설명을 이어 갔습니다.

IR 세션에는 영수증 관리 플랫폼 '자비스', 유아용품 커머스 '말랑하니', 랜섬웨어 해킹방어 솔루션'체크멀' 그리고 최근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비건 화장품 커머스 '멜릭서'와 대나무 칫솔 제조 기업 '닥터노아' 등 총 5개 팀의 IR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IR세션은, 생활 밀착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라운드테이블 in 부산 #32 경제를 알면 투자가 보인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M&A 동향, 로보틱스, 경제 시황 분석 강의 등 경제 상황과 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강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여경환 상무의 '최근 M&A동향'을 시작으로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센터장의 'AI&로보틱스 관련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로봇이란 용어는 사람이 편리하게 일을 시키기 위한 '노예(robota:체코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줄 '로봇'을 꿈꿔왔지만 기술로 실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정해진 작업만 수행하는 산업용 기계가 작은 시장을 형성했고, 스스로 동작하는 로봇을 만들려는 시도는 기술적,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최근 AI, 5G, 자율주행차의 센서기술 등 로봇의 기초기술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퀴형 로봇에서 트랙형 타입의 궤도형 로봇 그리고 2족 보행에서 4족 보행하는 로봇까지 진화했습니다. 고태봉 센터장은 "로봇 산업은 기존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각국 정부는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꼽고 있다"며 "로봇 1위 시장인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기금 운영본부장의 '경제 시황 분석 관련 강의'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의 경제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선엽 기금 운용본부장은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독일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올해 하반기 유럽의 경기 부양방식이 바뀔 것이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지 관세를 철회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를 알면 투자시장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심도 깊은 강의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9월 24일
선보엔젤파트너스 부산 본사에서
32번 째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습니다

라운드테이블 in 유럽 다시 창업가 정신으로

선보엔젤파트너스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33번의 라운드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처음 다섯 개의 기업 오너들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100여 곳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IR을 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프랑스의 저명한 투자사와 스타트업도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해 협업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스타트업은 투자의 기회를 얻고, 지역의 투자사나 중견기업 대표들은 새로운 네트워크와 투자처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은 중견기업과 혁신기술 스타트업이 함께 상생하는 신뢰와 개방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트너 중견기업 경영자분들과 함께 선보엔젤파트너스의 독일 지사를 중심으로, 유럽의 유수 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성장과 오픈이노베이션의 깊이를 더하고자 합니다. 라운드테이블 in 유럽입니다.

오는 11월 2일~9일, 7일간 개최되는 '제1회 라운드테이블 in 유럽'은 독일, 프랑스, 핀란드를 중심으로 현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을 직접 만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보쉬, 바스프, LVMH, 노키아, 다임러 등 글로벌 기업의 제조 현장을 직접 보고, 유럽 안에서 진행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존 산업에 인사이트를 더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핀란드의 기술 스타트업, 프랑스와 독일의 우수 투자기관, 스타트업 등과 네트워킹을 통해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협업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이제 글로벌이라는 바다에 커넥팅 닷의 닻을 올립니다.

제주 라운드테이블 'THINK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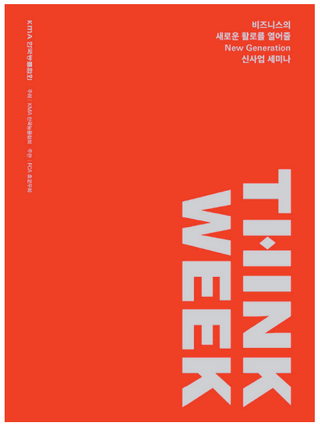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선보엔젤파트너스와 한국능률협회(KMA)가 함께 'THINK WEEK'를 개최합니다. 한국능률협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입니다.

'THINK WEEK'는 세계가 주목하는 CEO,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가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아이디어에 몰두하는 생각 주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복잡한 환경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리더도 일상에서 벗어나 오직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 ' 을 통해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싶은 대한민국 경영자와 임원에게'생각 공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 2~3세 경영인을 대상으로'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으로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1일 차 키노트 세션은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대표가 '기업인 2~3세의 기업 혁신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어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신동엽 연세대 교수가 강연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는 베이커리 어묵 사업으로 80억 원의 매출을 5년 만에 900억 원으로 늘린 삼진어묵 박용준 대표가 선보인 'F&B 시장의 혁신'에 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나영석 PD의 '리더십&창작'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집닥 박성민 대표, 링크샵스 서경미 대표, 원티드랩 이복기 대표가 정재승 KAIST 교수의 진행으로 '혁신의 방법'이라는 주제의 토크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의 강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세미나 내용에서 탈피한 현실적인 오픈이노베이션 'THINK WEEK'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Singapore

▲ CENTO 업무 협약식 사진

싱가포르 최고 대학을 중심으로 ··· 네트워크 활발

지난 5월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선보파트너스를 설립 후, 현지 채용을 통한 팀을 구축하여 활발한 네트워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NUS, NTU와 같은 싱가포르 최고의 대학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발굴 및 투자를 진행하고, 현지 보육 기관과 VC 네트워크도 빠르게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팀 빌딩 후 이곳 대학들을 중심으로, 두 달간 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검토 진행했습니다. 4분기에 5개가량 최고의 스타트업에 기업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삼진어묵과 함께하는 삼진어묵 글로벌 조인트벤처 투자 및 설립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을 함께 하고자합니다. 한편 선보엔젤파트너스는, 현지 최고의 투자 기관 중 하나인 CENTO와 MOU를 체결하고, 투자 협력 및 공동 펀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카타르 은행 QNB 내한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카타르 은행 QNB가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미팅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QNB는 세계 31개국에 진출한 중동/아프리카 최대 국책은행입니다. 이번 방문은 선보엔젤파트너스 및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와의 투자 협력 논의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카타르는 최대 LNG 보유국으로, 자원 기관의 산업은 발달되었으나 제조 및 기술 기반 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선보엔젤파트너스가 보유한 제조 중견기업과 테크 스타트업들과 협업하여, 그들의 산업을 혁신하고자 본 방문이 추진되었습니다.

양사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JV 설립 및 공동펀드 설립을 통한 상호협력 등을 긴밀하게 논의를 시작하여, 현재 실무 준비를 진행중입니다. 그 외에도 선보엔젤파트너스를 통해 파트너 중견기업의 경영진 및 카카오뱅크와 글로벌 핀테크 관련 교류 협력을 논의하였으며, 부산시, 부산은행, 산업은행 및 한국벤처투자와 지역/산업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IBK 기업 창공 부산과 선보공업 등을 방문하여 투자 협력 사항을 논의하며 전략적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SUNBO ANGEL PARTNERS

Qatar

Germany

AI 데이터 엔진을 통한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검토 진행

베를린 오피스는 지난 1월 첫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토대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유수의 벤처캐피털인 Redstone Digital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엔진을 통한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검토도 활발히 진행 중 입니다. 또한 SAP.io, BASF Venture Capital, TU Berlin 등 현지 인큐베이터, VC 및 기술기반 대학들과 네트워킹을 통하여 한국 - 유럽 생태계 연결의 단단한 저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11월에는 라운드테이블 in 유럽을 통하여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선진 기업 생태계 경험 및 글로벌 리더 기업과의 만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Industry 4.0,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업혁신의 주요 토픽에 대한 대담을 LVMH, Daimler, Bosch, Nokia 등과 나눌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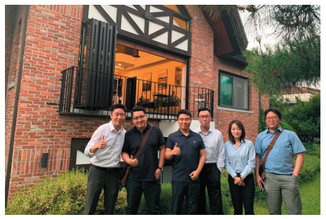
중국 최고의 메디컬 의료기기 WEGO Capital 협업 진행

중국 최대 의료기기 업체 WEGO Group의 자회사인 WEGO Capital이 선보엔젤파트너스와 투자 협업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WEGO Group은 중국의 혈관 투석기 스텐트, 임플란트, 수술 기기 등, 의료기기와 바이오 전 분야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매출 약 4조 원의 중국 주반(메인 증권 거래소) 상장사입니다.
WEGO Capital은 WEGO Group 산하의 투자회사로 현재 1400억 원 규모의 M&A 및 글로벌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WEGO Capital은 UNIST를 방문해 유망 바이오 기업인 선보엔젤파트너스의 포트폴리오사 슈파인세라퓨틱스, 리센스메디컬, 유튜메드텍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양사는 WEGO Group 이 가진 중국내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에 투자를 진행하고, 한국의 투자 법인 및 공동펀드 등을 추진하는 것들을 논의 진행 중입니다.

China



선보엔젤파트너스 신규 포트폴리오

랩스피너	**유앤에스에너지**
설립일 : 2018년 9월 액체생검을 위한 고순도엑소좀 분리기기 개발	설립일 : 2018년 09월 신개념 집전체를 활용한 2차전지 LIB 개발
현성	**온지**
설립일 : 2018년 7월 스마트 물류 IoT 기기 제조업체	설립일 : 2018년 5월 한약재 및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제조업
이노플라즈텍	**포어시스**
설립일 : 2018년 11월 플라즈마 분산기술을 이용한 탄소나노분말 강화복합소재 개발	설립일 : 2017년 1월 스마트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삼진어묵 글로벌	
설립일 : 2019년 10월 삼진어묵의 동남아 시장 도전을 위한 싱가포르, 베트남 중심의 글로벌 합작투자 기업	

선보엔젤파트너스 / 포트폴리오 NEWS

에스엠엘 한국투자파트너스, DSC, 슈미트에서 50억원 후속 투자유치 완료
슈파인세라퓨틱스 뉴플라이트, 알펜루트 자산운용에서 20억원 후속 투자유치 완료
코멘토 10억원 후속 투자 유치 완료
CEM 오토인더스트리에서 10억원 후속 투자유치 완료
케이넷이엔지 신용보증기금에서 10억원 후속 투자 유치 완료
첨단랩 미래과학기술지주에서 5억원 후속 투자 유치 완료
리포마 조광페인트 및 DSE로 부터 후속 투자유치 완료
온지 중견기업 연합으로 부터 후속 투자유치 완료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신규 포트폴리오

미네르바프로젝트	**씨드로닉스**
설립일 : 2011년 7월 온라인 Active Learning 강의 플랫폼 아이비리그급 학위 제공	설립일 : 2016년 4월 항만 접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기업
핏투게더	**스트라드비젼**
설립일 : 2017년 3월 축구 웨어러블 EPTS 기반 분석 플랫폼	설립일 : 2014년 9월 ADAS 및 자율주행차용 딥러닝 기반 사물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볼텍코리아	
설립일 : 2014년 3월 페로텅스텐(합금철) 생산하는 국내 유일 페로텅스텐 제조업체	

액체생검을 위한 고순도엑소좀 분리기기 개발 기술 '랩스피너'

랩스피너 / 이용진 대표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한다'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 전 세계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 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금이 몰리는 영역이기도 하죠.
선보엔젤파트너스도 최근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랩스피너에 투자했습니다. 체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액체생검'은 '엑소좀(Exosome)'과 같은 나노미터(nm) 크기(머리카락의 10만분의 1)의 물질을 활용해 이뤄집니다. 랩스피너는 이 엑소좀을 활용해 체액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용진 랩스피너 대표, 이번 투자를 주도한 김태호 과장과 함께 이 스타트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랩스피너 사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용진 대표 우리의 혈액, 눈물 등 체액에는 암을 대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 숨어있는 물질을 분리해 분석하면 암 진단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세 가지 물질이 주로 활용되는데 CTC, ctDNA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엑소좀(Exosome)입니다. 이들을 마커라 부르죠. 엑소좀이 가장 뒤늦게 발견된 물질이고 지금은 가장 핫 합니다. 다른 마커들에 비해서 양이 절대적으로 많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엑소좀을 얻기가 힘드니, 액체생검으로 이어지는 길도 막혀있는 셈이죠. 랩스피너는 이 엑소좀 분리를 100% 자동화로 구현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Q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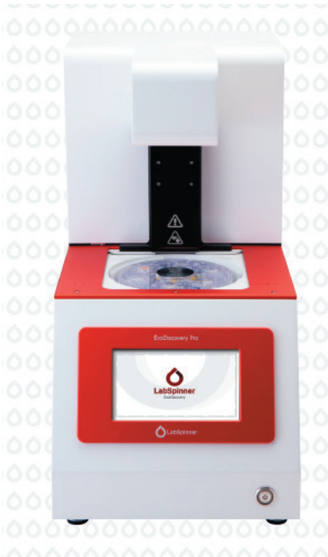
이용진 대표 기존의 분리 방법보다 훨씬 더 고밀도 고순도의 엑소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100% 자동화로 간편하게 구현하는 기기를 개발 중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엑소좀을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으면 관련 분야 연구가 활발해지고, 건강검진센터에서도 일주일 걸리는 검사 결과를 단 한 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Q 랩스피너에 투자하게 된 배경도 이런 장점 때문인가요?

김태호 과장 네 맞습니다. 우선 액체생검이라는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랩스피너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활용도가 다양하죠. 이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조윤경 UNIST 교수의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타트업이라는 점도 투자 결정을 도왔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라 세계 1위를 노릴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현재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에서 협업 요청 및 여러 계약 건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Q 선보엔젤과 랩스피너가 만나게 된 배경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용진 대표 랩스피너는 저와 조윤경 교수님이 오랜 기간 검토하고, 수정을 거쳐서 만든 회사입니다. 좋은 기술을 어떻게 실용성 있는 제품으로 바꿔야 하는지 그동안 고민한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회사죠. 창업 이후 투자를 고민하게 되면서 UNIST에서 추천받은 곳이 선보엔젤파트너스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느낀 점이 '아! 이곳은 전문적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투자를 바라보는 재무적투자자(FI)관점이 아니라 기술적 관점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라 생각했습니다. 덤으로 다양한 해외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의사결정도 매우 빠른 편이었어요.



Q 앞으로 랩스피너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이용진 대표 3년 내 진단시장에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 제약사들의 엑소좀을 활용한 신약 FDA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제품이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소형 병원에도 진출이 가능해져요. 저희 기기는 한 번 팔면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폭발적이면서 꾸준한 매출이 가능해지면서 기업공개(IPO)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김태호 과장 현재 해외 시장에서부터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랩스피너 제품의 대리점 역할을 하겠다며 계약을 요청하고 있고, 구매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이런 사업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저희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신시장 개척을 돕고, 유망한 국내·외 투자자, 의료기기 분야 전략적투자자(SI)등을 연결해 스케일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SUNBO ANGEL PARTERS #ESSAY #PART.01

기업에는 많은 '조직'이 존재합니다. 기업의 조직은 회사, 업종에 따라 구성되며 모양새도 명칭도 매우 상이합니다. 이는 기업에 맞는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을 높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유효성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함께 회사를 만들어가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조직혁신을 하며, 새로운 조직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SUNBO ANGEL PARTNERS

커넥팅 팀 / 고덕수이사

INTERVIEW

Q 커넥팅 팀은 어떤 일을 하는 팀인가요?

중견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이라고 하면, 신규사업을 위한 혁신기술 창업을 같이 컴퍼니빌딩을 하거나 M&A를 진행합니다.

Q M&A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보엔젤파트너스는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중견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사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2~3년 동안 증명했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이후 중견기업은 M&A 와 같이 조금 더 스케일이 큰 프로젝트도 함께 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견기업은 크게 두 가지의 신사업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산업을 아예 뒤바꿀 수 있는 혁신 기술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TIPS라던가 SPARC 라던가 이런 외부 생태계를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입니다. 오랜 기간 창업자와 함께하면서 일정한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같이 투자와 협업의 정도를 늘려가는 형태가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밸류체인상에서 바로 즉각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은 M&A의 형태가 맞는 거 같습니다.

Q 커넥팅 팀 구성원이 독특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구성원이 커넥팅 팀의 핵심적인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자본시장 포커스에 맞춰진 인재보다 실제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고민이 커넥팅 팀의 채용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관점에서 언론사 출신을 채용했습니다. 언론인과 투자자의 본질은 비슷합니다. 언론사 출신은 창업가의 Why를 잘 경청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고 리서치 능력 또한 탁월합니다. 더불어 우리와 같이하는 기업들이 전통 제조업 군이다 보니 비슷한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가진 대기업 출신 연구원, 회계사 출신 M&A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Q. 향후 커넥팅팀의 지향점은?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전통적인 제조업이 어떻게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설립의 이유처럼 기술, 산업 그리고 투자생태계를 연결하는 것이 커넥팅 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희의 네트워크 중견기업들이, 커넥팅 팀과의 연결과 협업을 통하여 좀 더 강건한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보공업 : 선보공업 창립 33주년 기념식 개최

부산 을숙도문회회관에서 선보공업의 33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33주년 기념식은 문화공연, 명사특강, 창립기념식 등 총 3부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의 1부는 최정상의 연주자로 꾸며진 비올라 앙상블 시네마 뮤직 공연으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2부는 오지 탐험가 도용복 사라토가 회장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3부는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부른 사가 재창을 시작으로 대외기관 포상·사내외 우수협력사상·우수사원상·모범사원상·공로상 등의 수여식과 명예선보인 추대, 축사, 최금식 회장의 창립기념사에 이은 기념케이크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사에서 최금식 회장께서 "33년 전 책상 두 개와 전화기 두 대로 변변한 사무실도 없이 남의 사무실 귀퉁이에서 곁방 살이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선보가족, 위기 때마다 힘이 되어주시고 옆에서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무엇보다 선보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4시간여 동안 진행된 33주년 기념식 마지막에는 선보 패밀리 전 직원의 33주년 축하 인사 영상이 선보였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코믹하게 담아낸 영상 속 메시지는 선보를 향한 선보 패밀리의 애정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딱딱하고 형식적인 기념식에서 벗어나 신명나는 문화공연과 뭉클한 감동이 함께한 33주년 기념식은 하나 된 선보 패밀리를 더욱 돈독히 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SUNBO ANGEL PARTNERS NEWS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창업 지원금으로 1억 기탁

(2019/06/27)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창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창업 지원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식은 GIST의 김기선 총장, 송종인 부총장, 김인수 연구원장, 박성규 대외협력처장, 김미연 대외협력팀장과 최영찬 대표, 오종훈 대표,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김종배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영찬 대표는 "우수한 원천기술을 가진 GIST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기탁을 결심했다"며 "연구 성과를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을 통해 GIST와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가기

SUNBO ANGEL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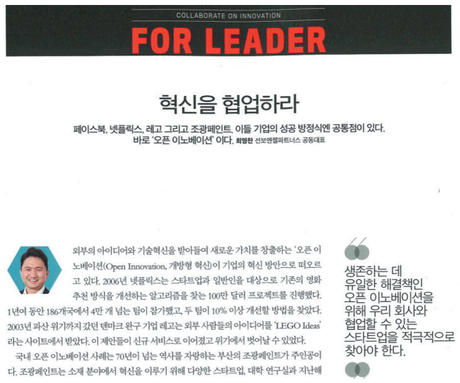
부산일보'와 부·울·경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2019/09/15)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에서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부산일보는 상호 업무협약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창업기업 지원과 벤처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업무교류와 정보공유를 하고 직접투자와 사업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관련 지원을 위한 맞춤식 행사를 열고, 청년 사업 지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기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로가기

포브스 9월호 – 혁신을 협업하라


COLLABORATE ON INNOVATION
FOR LEADER

혁신을 협업하라

페이스북, 넷플릭스, 레고 그리고 조광페인트. 이들 기업의 성공 방정식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 이다. 최영찬 선보엔젤파트너스 공동대표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을 받아들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이 기업의 혁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6년 넷플릭스는 스타트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영화 추천 방식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찾는 100만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년여 동안 186개국에서 4만 개 넘는 팀이 참가했고, 두 팀이 10% 이상 개선할 방법을 찾았다. 2003년 파산 위기까지 갔던 덴마크 완구 기업 레고는 외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LEGO Ideas'라는 사이트에서 받았다. 이 제안들이 신규 서비스로 이어졌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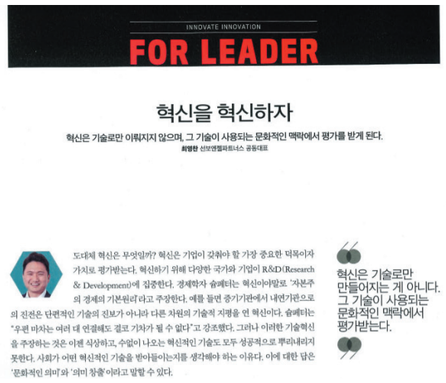
국내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는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의 조광페인트가 주인공이다. 조광페인트는 소재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스타트업, 대학 연구실과 지난해

생존하는 데 유일한 해결책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우리 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성공하려면 기업은 외부 기업 혹은 스타트업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협업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치게 마련이고, 이 과정을 완주하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훌륭한 경영자들은 이 어려움에서 혁신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바로가기

포브스 10월호 – 혁신을 혁신하자


INNOVATE INNOVATION
FOR LEADER

혁신을 혁신하자

혁신은 기술로만 이뤄지지 않으며, 그 기술이 사용되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최영찬 선보엔젤파트너스 공동대표

도대체 혁신은 무엇일까? 혁신은 기업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로 평가받는다.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기업이 R&D(Research & Development)에 집중한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혁신이야말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원리'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의 진전은 단편적인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기술적 지평을 연 혁신이다. 슘페터는 "우편 마차는 여러 대 연결해도 결코 기차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혁신을 주장하는 것은 이젠 식상하고, 수없이 나오는 혁신적인 기술도 모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다. 사회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들이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대한 답은 '문화적인 의미'와 '의미 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혁신은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 기술이 사용되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평가받는다.

"혁신은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 기술이 사용되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평가받는다. 혁신을 위한 R&D도 기술과 더불어 인간의 삶과 문화적인 의미에서 완성된다. 혁신 사례를 찾아보면 기업가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게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가기

‘Open Biz Morning :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짜 얼굴을 본다’ 오종훈 대표 강연

“(선보엔젤파트너스는) 투자수익이 목적이라기보다 네트워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자, 사업적인 밸류를 줄 수 있는 게 투자 기준점입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 오종훈 대표의 말입니다. 오 대표는 지난 7월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오픈이노베이션협회에서 주최하는 ‘Open Biz Morning : 오픈 이노베이션의 진짜 얼굴을 본다’ 행사에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오픈비즈모닝은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오종훈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설립 배경과 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 과정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시작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첫 시작은 6년전 모회사인 선보공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보공업은 부산에 소재한 33년 된 조선기자재를 제조하는 매출 2000억 원의 중견기업입니다.
오종훈 대표는 “선보공업 2세 경영인인 최영찬 대표, 고덕수 이사와 함께 선보공업의 신사업팀에서 근무했다” 며 “조선업은 3~4년 전에 미리 수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미래산업에 대한 고민이 많다. 잘하는 선주 기업도 많은데 같은 아이템에 너무 많은 플레이어가 몰려 경쟁력은 격화되고, 원가 경쟁률이나 A/S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며 신사업팀에서 일했을 당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전통 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투자생태계를 활용하고,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하면 보다 효과적인 신사업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보자” 그것이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시작이고 스핀오프(spin-off)를 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 오픈이노베이션의 의미

“신사업팀에서 해도 될 일을 왜 스핀 오프까지 했느냐?”는 질문에 오종훈 대표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려면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신사업은 밀리게 된다. 또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길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따른다”며 “또한 이 업에 있는 사람들 보다 더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기 힘들다. 새로운 산업 그리고 먼 미래의 Pool을 준비하려면 스핀 오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규사업의 어려움에 대해 오종훈 대표는 “신규 사업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다. 중견기업에게 한 두 번의 투자가 실패하면 치명적이다” 고 설명하며 “소프트뱅크는 미래 산업의 핵심적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이를 그룹화해가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업 확장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종훈 대표는 이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중견기업과 함께 공유하고 신사업팀에게 공유하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했다”며 “신사업의 니즈가 있는 중견기업이 리소스를 줄이고, 스타트업에게 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이나 생산의 인프라를 제공하면 서로가 윈윈(win-win)하고 빠르게 사업화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수 있다”며 “그것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작이자 라운드테이블을 매달 개최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견기업, 대기업의 문화와 시스템은 다릅니다.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이 다르고 그런것을 이해하고 만들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신뢰와 개방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실제 파트너 기업의 오너, 실무진과 함께 월별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